

Dog-온(溫) 캠페인 핸드북

방치된 동물들을 돕기 위한 Tip!



캠페인 대상

- ▶ 매일 짧은 목줄에 묶여 있는 개
- ▶ 비와 눈, 바람을 피해 쉴 수 있는 집이 없는 경우
- ▶ 물과 사료 제공이 불량한 경우
- ▶ 지저분한 환경에서 사는 경우
- ▶ 주인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등.

캠페인 과정



캠페인 준비물

개집, 식기, 목줄, 청소도구, 사료, 생수, 빗집, 구충제, 반려동물용 간식 등

1 만나기

주인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것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기준이 되기에 방치된 개들을 돕기 위해 주인을 만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대부분 주인들은 자기가 개를 기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주인이 나름 자기만의 방식으로 개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고, 키우는 방식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말투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동물들을 도울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인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평소에 개를 좋아해서 개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정도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고, 밝은 얼굴로 좋은 인상을 남겨요.

2 마음 열기

주인이 거부감 없이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첫 만남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주인이 허락했다 해도 '마음 열기' 작업을 탄탄히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개선해주기란 어렵고, 결국 동물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주인의 인식이 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화제로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보세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한 음료, 동물용 구충제나 개 간식을 준비해 선물로 드리면서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개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해보세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움을 주려는 개와 친해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담이 되지 않을만한 **간단한 선물**을 드리는 것도 마음을 여는 방법!



경계심이 심한 개는 여러 번 만나면서 **간식으로 친해지기 ^^**

3 설득하기

주인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몇 마디 대화만으로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부담스러워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며 도움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인아저씨가 도움을 거부했다면, 주인아주머니 혹은 다른 가족을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이 책임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개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는 점, 찜뱃을 먹을 경우 신장과 간에 무리가 가고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점, 매일 진돗개 크기의 개는 1L이상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 물을 지속적으로 먹지 못할 시 탈수와 대사 장애, 장기 손상까지 겪을 수 있다는 점 등 객관적인 수의학 적 정보를 곁들여 얘기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개가 목이 말랐던 상태에서 물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나 집을 설치했을 때 들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간단하면서도 주인으로 하여금 개에게 해줄 수 있는 배려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만든 '**밖에서 개를 기를 때 알아야 할 사항**'처럼 개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인쇄물을 이용해보세요.**

4 개선하기

설득 과정을 통해 주인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환경을 개선해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직접 구비해주는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동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개선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혼자 힘으로 부족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함께 도움을 줄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무엇 해줄 수 있을까?



청소하기 : 지저분한 환경은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그릇 놓아주기 : 그릇은 사료와 함께 물도 항상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두 개를 준비해주시거나 아예 쌍식기로 놓아주세요.



집 놓아주기 : 추운 겨울에는 집 안에 보온재로 벅짚을 깔아주세요.



목줄 바꿔주기 : 긴 목줄로 교체 해주는 것을 허락 받았다면 주변에 줄이 엉킬 수 있는 물건을 치워주신 후 교체해주세요. 사진의 줄은 가볍고 튼튼한 대형견용 3M 와이어 줄입니다.



도움 요청하기 : 혼자 힘으로 부족할 경우 주변에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중성화하기 : 중성화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수술을 위한 기본검진 후 중성화 수술을 시행합니다.

5 지속적인 모니터링

도그온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입니다. 개선 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는지 확인하고, 관리에 도움을 주면서 주인으로 하여금 동물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계속 상기시켜주세요.

이때 여러 번 방문해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주인에게 감시나 감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뢰를 잃지 않고, 도움의 끈을 항상 유지해야 주인이 개를 잘 돌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소유권을 포기시켜 좋은 입양처를 찾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모니터링하기 힘들다면 가까운 곳에 도움 줄만한 분을 섭외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선 후 개가 집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바뀌준 목줄이 영키지 않았는지 등 미처 생각지 못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빠트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자주 방문할 수 없다면 가까운 이웃들 중 도움을 줄 분을 찾아 사료를 맡기고, 관리를 부탁해보세요.

마당, 옥상 같은 야외에서 개를 기를 경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 개도 사람처럼 밖에서 추위에 계속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과 동상에 걸릴 위험이 높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털이 짧고 작은 체구의 개일수록 더욱 위험합니다.
- 개가 야외에 장시간 있을 때는 개에게 비와 눈, 추위와 바람을 피하고,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 플라스틱으로 된 집이라도 있는 게 낫지만, 여름에 빨리 뜨거워지고, 추위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과 보온이 잘 되고, 방수 처리된 목재로 만들어진 집이 좋습니다. 땅의 찬 기운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과 목재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의 바닥은 땅에서 몇 인치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입구에는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가림 막을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집의 크기는 개가 자유롭게 서고 돌고 앉기에 충분하고, 체온으로 집 안이 금방 따뜻해지도록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가 적합합니다.
- 온도가 7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되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에 짚과 같은 보온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담요나 옷, 수건을 넣는 것은 야외에서 젖거나 얼면 더욱 좁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는 충분한 양의 사료를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잘 건조된 그릇에 사료를 주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사료 양을 늘려서 제공해야 합니다.
- 개는 신선한 물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개도 사람처럼 계속 물을 섭취하지 못할 경우 추운 날씨에도 탈수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은 얕어져 쏟아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무겁거나 고정된 그릇에 담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겨울에는 얼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야외에 있는 개들은 벼룩, 진드기, 기생충, 심장사상충에 감염될 위험이 높기에 수시로 확인해주고, 예방약을 투약해줘야 합니다. 개에게 필요한 영양을 빼앗고 가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목숨까지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는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접촉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당에 묶인 채 홀로 살아가는 개는 지루함, 외로움, 고립감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동물보호법 제7조(적당한 사육·관리)

- ① 소유자들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들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소유자들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